

서원의 외부공간 특성

-상주지방의 사례연구-

박영달* · 신영철*

*충북대학교 원예학과

External Space Characteristics of the Seowon -A case Study of Sangju Area-

Park, Young-Dal* · Shin, Young-Chul*

*Dept. of Horticulture, Chungbuk National Univ.

ABSTRACT

This research deals with external space Seowon(lecture hall) dedicated to education and memorial rites in Sangju area of Choson Dynasty. Characteristics of Seowon as follow;

1. Seowon of Sangju area were built from the middle of 17C to the beginning of 18C.

Ideological background of building functioning were grafted into the belief in the three God governing Childbirth, the theory of feng-shui(wind-and water-magic) which is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and confucianism and the philosophy of lao-tze and chung-tze. The formation of space were horizontally arrangement and vertical arrangement as the first-learning and then-ancestor shrine of Youngnam provinces.

2. Background and factors of site selection were applied geographical feature. tried to connect owner home town.

3. The shape of path of flow were simple of vertical and curved composition, were continued, were stabilized through composition of human scale's space by reasonable internal.

A case of Sangju area, D/H ratio of the front areas of buildings and courts was as follows. D/H=1> Hyangkyo> houses on the river> temples> lecture halls. D/H ratio of the backside areas is as follows. D/H=1> Hyangkyo> houses on the river> lecture halls.

4. Inner garden were planted deciduous than evergreen trees with Lagerstroemia indica. Enclosed dominant trees were planted by Pinus densiflora, Quercus seuata.

Key Words : Seowon. external space, Sangju.

I. 서론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에 대한 향사기능과 유학을 강학하는 교육기능을 갖는 사(祠)와 제(齋)가 결합된 묘학(廟學) 공간으로 사학교육기관이자 향촌자치운영권을 가진 기구이다. 서원공간은 주향자의 연구지를 주된 인문환경적 장소성과 수심양성의 장으로서 자연경승지에 건립되어지고, 시대성의 반영과 자연환경 그리고 계파분화로 인한 사상공관이 점록된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사유성(思惟性)이 깃 들어 있고 친수적 생태 공간으로서의 광역 환경은 건축공간이라는 유형문화재와 그 주변을 둘러싼 무형적인 자연경관이 역사 문화공간을 구성하는 영역 범위가 된다. 역사 문화면으로 본 상주지방은 퇴계의 영남학과 영향권 내로 삼한시대 성읍국가 형태의 고려가야, 사벌국 그리고 고려시대 상주목, 경상도[경주+상주]란 호칭의 함축성. 조선시대 때는 8목 중의 하나인 역사도시로의 지역성을 보여주는데, 상주지방 서원은 그 당시 여타 지역 중 분포성에서 우위를 차지(박두필, 1987)한 것으로 보아 유림의 아성지역임을 나타낸다. 지역적 연구의 필요성은 계파간의 이념, 지리적 특성의 차이로 공간 양식면에서 영남학파의 기저를 이루는 대구·경주지역이 중앙 관료적·하향적 특성을 갖는다면, 안동·상주지역은 지방 토호적·상향적 성격(김봉열, 1988: 179)이 있고, 또한 안동지방이 폐쇄형, 북방형이라면, 상주지방은 상대적으로 개방형, 남방형 주거가 주류를 이루는 지역문화가 상존하는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남권을 비롯한 서원의 특성에 일조할 수 있는 기대효과 차원에서 유림을 형성해 왔던 상주지방의 서원문화와 관련된 역사와 조영성, 입지 및

경관구조, 전이성, 공간미, 정원구성요소 등 인문과 자연을 결부시키는 외부공간특성을 추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의 범위 및 분석방법

사례 대상지 표 1의 공간적 범위는 조선시대 중·후기로 당시 상주지방에는 19개소(상주지, 1989: 723-726, 상주(3), 1987: 298-299, 상산지, 1984: 38-41, 상주의 얼, 1985: 174-186)가 문헌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서원은 훼손되었다가 증·개축 과정을 겪었는데, 그 중 원래의 입지성이 고려되었고, 전래 과정에서 비교적 손실이 작은 현존 서원 9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 및 조사는 분포성과 역사적 배경 파악을 위해 관련 문헌기록, 분석대상지가 갖는 객관적 제 현상의 접근사항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과 문중 및 관련 유림의 개인 면담을 겸한 현상적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입지 및 지형적 경관 가시화를 위해 재래지도와 GIS, ARC/INFO S/W로 TIN image"를 생성 시켜 지형분석의 보완사항이 되도록 하였고, 공간분석은 단위 공간별 비례, 밀폐도, 방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5m 합척, 50m 줄자, scale자, 각도기, 초음파 거리 측정기(UM901), 라경륜도판을 이용하였다. 정원구성 요소는 시대적 변천과정에서 전래된 문헌의 미비와 훼손, 복원 등으로 일별하기는 어려웠으나 현존물을 포함시켜 구전 또는 문헌에 의한 정원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표 1. 대상지 현황

대상서원	조영자	건립년대	소재지	비고
옥동서원	미상	1711	경북 상주시 모듬면 수봉리 546	경북도 기념물 52호
홍암서원	성씨 유림	1702	경북 상주시 연원동 769	경북도 기념물 61호
도남서원	미상	1606	경북 상주시 도남동 175	
우산서원	정경세	1600년대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연악서원	신잠	1702	경북 상주시 양촌동	
봉강서원	미상	1817	경북 상주시 신봉동 24	
봉산서원	미상	1708	경북 상주시 화서면 사산리	
옥성서원	신잠	1632	경북 상주시 외남면 신상리	
효곡서원	미상	1685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신리	

III. 결과 및 고찰

I. 유래 및 조영성

사례지 관찰 결과로 볼 때 백화서원으로 시작된 옥동서원은 황희(1363-1452)선생 외 3인이 배향(김자상(역), 1984: 39)되었고, 서원 훼손시 계획된 9개 서원중 하나이다. 건물구성은 경덕사와, 온회당, 청월누(취보문)로 크게 나뉘어 지고, 내삼문과 전사청, 고직사를 둔 전학후묘형이다. 출입통로인 누각은 회보문(하층), 청월루(상층)로 구분되며, 평면구성은 진밀요(좌), 윤택요(우)의 방과 계자난간을 두어 시각미와 안전성을 나타내었다(그림 1). 홍암서원 또한 사액서원으로 다른 서원에 비해 단독 배향된 동춘 송준길(1606~1672)은 충남 논산군 연산면에 위치하는 돈암서원에도 배향되어 있는데, 동춘은 조선 후기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1548-1631)의 아들인 신독재 김집(1574~1656)의 제자로 기호학파로 활약하였다. 진수당과 홍암사, 그 사이 집의재를 둔 전학후묘형 사당 중심이며, 또 판목을 보호하는 판각 그리고 강당에서 50m 지점에 어필비석이 있는 어필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도남서원은 영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서원이었고, 영남학파의 중심역할(상주시군, 1989: 849)과 산수가 뛰어난 유상처로 일관당과 정허루는 문회·시회의 공간으로 자주 사용되어 졌으며(상주문화원, 1988: 317), 배향인물로는 이황을 비롯한 8인이 입향 되어 있다(그림 4). 건물 공간은 그림 3과 같이 진입문은 영귀문인 정허루가 있었고, 동쪽에 풍우단, 일관당을 축으로 서쪽에 서재인 의재(좌는 침이헌, 우는 민구헌), 동쪽에 동재인 경재(좌는 관서헌, 우는 손학헌)가 있었다(금중현, 1998: 개인교신). 특히 서원은 당시 강당과 사당이 종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는 도정사, 일관당 그리고 영귀문에서 축을 이루지 못한 것이 변화 요인으로 생각된다. 우산서원은 우복 정경재(1563-1633)선생이 향인들이 서당으로 세운 것을 점차 증축시킨 것으로 도존당(좌는 경재, 우는 의재)과 송도사 그리고 고직사로 구성되어 있다(정춘목, 1998: 개인교신)(그림 5, 6). 서원의 공간유형은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 산천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구릉지 배치를 이루고, 구릉지 배치의 유형은 모두 전학

후묘로 나타나는데, 병렬형의 형태는 드물게 나타나나 전묘후학의 경우는 전무할 정도로 그 유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전묘후학의 전형적 형태가 서원공간의 주를 이루며(이현택과 이 정, 1994: 102), 이후 전학후묘의 배치가 거의 고수된 점이며, 이러한 배치로서 예외적인 경우로는 몇 개소의 병렬형 배치와 재사 생략형 중 수립서원 등을 들 수 있다(김은중, 1996: 229). 또 서원의 강당중심형은 형성기에 강당이 중심이 되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도기에는 극단적으로 사당이 생략된 형태와 사당이 병렬되는 형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이상윤, 1993: 66). 이렇듯 서원은 묘와 학이 서원을 구성하는 관계로 제한 공간, 장학공간, 재실이 핵심 건물을 이루면서 전묘후학, 전학후묘, 좌묘후학, 우묘좌학의 배치 유형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로 볼 때 상주지방 서원의 건립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 서원 건립이 많았던 발전기로 볼 수 있고, 배향수도 1인~8인 까지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단독 배향하는 홍암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수 선현을 배향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유형은 흔히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로 구분되는 바 옥동서원에 배향된 황희를 비롯한 상주의 모든 서원이 이황의 영남학파라면, 홍암서원에 배향된 송준길은 이이의 학풍을 받은 기호학파로 구분된다. 따라서 영남학파를 이루는 서원의 공간형식은 전학후묘형 강당중심으로 건물이 단순한 종배열 체계인데 비해 홍암서원만이 전학후묘형 사당중심에 부속건물을 수평적으로 두는 등 횡배열 공간구성을 보인다. 여기서 사당중심형 발전기 때에 건립된 홍암서원의 공간형식은 주향자(송준길: 1606~1672)가 기호학파를 이루는 스승 김집(1574~1656)의 영향과 충남 논산에 자신의 선영(先塋)이 있는(성보환, 1998: 개인교신) 것으로 보아 그 영향권내를 고려해 성씨 유림이 건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배치 중 특히 도남서원의 경우 강당과 사당의 축이 벗어나고, 기타 건물의 조합이 일반 서원의 규칙적인 유형과는 달리 불규칙한 특이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원이 사문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지방의 사림이 중심이 되어 세운 사학이기 때문에 향교에 비해 다소 자유스런 면을 가진 특성(김지민, 1991: 183)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서원 건립시 주요 사상은 전학후묘 형태의 서원 중심 공간인 사



사진 1 GIS TIN of Okdong Seowon



사진 2. GIS TIN of Hung-am Seo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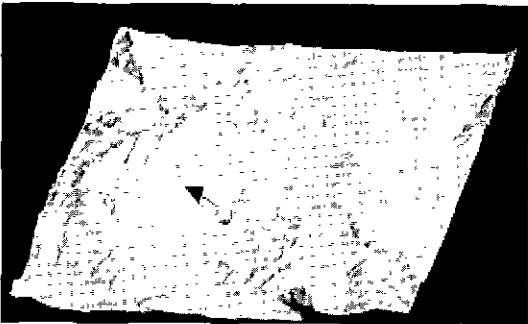


사진 3. GIS TIN of Donam Seowon



사진 4 GIS TIN of Usan Seowon(C)

고 있다(사진 2). 도남서원의 입지는 야산 구릉형으로 뒷편에 비경이라 불리는 정천대와 회상나무 그리고 전방 비봉산의 상봉에는 청룡사가 있고, 낙동강과 비봉산(230m)을 조망측으로 입좌병향(壬坐丙向)하고 있다(사진 3). 또한 이곳의 지명이 입자 없는 물가에 서원이 섰다는 무임호(無任浦)(권태을, 1995: 188)로서 즉 위용스런 자연과 산수경에 몰입될 수 있는 장소성을 보여주는데, 북쪽에서 흘러 내려온 낙동강물이 비봉산 정상 밑에서 우회곡결 하여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입지성이 나타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슬좌진향(戌坐辰向)으로 자리잡은 우산서원 지세는 속리산의 지류인 우복산을 진산으로 전방 천마산(445m) 지류는 안산적으로 자리잡아 배산임수와 용호지세가 뚜렷한 구릉형 입지이며, 특히 증가와 부속루, 정자를 뒤로하고 산 쪽 깊숙이 들어가 있어 학문을 도모하고 심성을 수양토록 한 의도적 입지성이 나타나 있다(사진 4).

표 3과 같이 대상 서원의 입지배경은 주향자의 연고지나 자연환경과 대단히 관련을 맺으면서 구상형과 같이 조망권을 강조하는 곳도 있는 반면 대부분 구릉형으로 주변에 계류가 흐르고 지형적으로 전·후, 좌·우

자연요소와 결부된 친수 환경으로 안정적 특성을 갖는다. 한편 좌향으로 본 한국 사학건축의 좌향은 丙(남동남)·午(남)·丁(남서남)향이 31%, 辰(동동남)·巽(동남)·巳(남남동)향이 25%로서 이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未(남남서)·坤(남서)·申(서서남)향이 10%로서 전체적으로 남향과 남동 또는 남서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66%에 달한다(김은중, 1996: 26)고 하였는데, 상주지방 대상서원의 좌향은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남동남·남향이 33%, 동동남(2개소)·동동북·동남동·동남향(2개소)이 56%, 북향이 11%로 지세향을 따르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지세를 활용하면서도 주축을 이루는 지리체계가 반영되어 향교와 같은 문묘의 남향 배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방위성이 배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기후 즉 증향과 물의 흐름 등 지정적 조건이 고려되었고, 지리체계 즉 옥동서원은 현수봉을 정축으로 연암서원은 천봉산을 흥암서원은 식산울, 봉산서원은 백화산을, 봉강서원은 백운산을 조망측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성은 어떤 주축을 이루는 동경의 지형물에 관련을 두고 있다 또한 흥암서원은 오공입지(蜈蚣立地)“라는

표 3. 입지특성

구분 서원명	읍성과의 거리*(km)	입지 선정배경	입지유형	마을관계	경관요소의 연관성	방향
옥동서원	24.00	연고지	구릉형	마을뒤	산(현수봉)▶(川)·野·청산	EEN
홍암서원	2.20	연고지	구릉형	마을뒤	산(노음산)▶野·村·청산(석산)	EES
도남서원	8.50	자연경승	구상형	마을뒤	야산▶백사장·강·산	SES
우산서원	11.10	연고지	구릉형	별개	산(우복산)▶계류·(川)·野·산	EES
연악서원	6.25	연고지	구릉형	마을측면	산(갑장산 지류)▶계류·청산(천봉산)	N
봉강서원	1.60	연고지	구릉형	마을뒤	산(남산)▶村·野·(川)·청산(백운산)	ESE
봉산서원	21.00	연고지	구릉형	마을측면	산▶野·산·청산(백화산)	S
육성서원	9.25	연고지	구상형	마을뒤	야산▶野·(川)·청산(갑장산)	ES
효곡서원	14.10	연고지	구릉형	마을뒤	산▶村·野·청산	ES

*. 읍성과의 거리는 조선조 상주목 읍성과 대상지와의 직선거리임.

지세적인 험(지네의 턱부분)에 도남서원도 무임포(無任浦)라는 지명비보와 더불어 전방 비봉산을 안대로 삼은 택지 선정에서 산신승배사상과 연계된 회원사당이 내포되고, 지세면을 강조한 풍수사상이 깃 들어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설립 위치로는 모두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입지한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읍성과의 거리면에서는 향교에 비해 읍성의 외곽이나 한적한 곳에 환상형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는 사대사조와 은둔사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 경관구조특성

경관은 인간이 환경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보는 경관과 보여짐으로서 감정 유발이 되는 시공간을 거쳐 나타나는 연속적 경험의 복합물로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 경관을 이루는 지형적 시각의 객관화를 위해 조망 구조 유형을 설정하고, 경관인식 제 요소를 기법화 시킨 것이다. 여기서 경관 구성요소 중 수목, 구조물, 풍류공간 등은 정원 특성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이 항의 외부경관은 지형적 경관 가치 요소에 대한 것이다. 그 방법면에서 GIS TIN과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건물의 입지점에서 근·중·원경의 지형지물을 조망축으로 했을 때의 시각적 인지구조로 수평적, 곡선적, 초점적, 연속적, 차폐적 구조로 분류하였다. 이에 수평적 요소와 근·원경요소 중 시각상 정연하고 대상 장애물이 별로 없는 수평감, 또는 평면감을 줄 때는 수평적 구조로, 또한 조망거리의 멀지만 근·원경요소 사이에 산 등 시각 장애적인 요소가 주어지면 S형 혹은 Z형을 이룰 때

곡선적 구조로, 대상지 좌·우에 높은 물리적 대상물이 수직으로 조망되고 이 수직요소가 이어져 Vista가 형성될 때를 초점적 구조로 대상지 주변이 위요되어 봉쇄감을 느낀 장소를 차폐적 구조로 보았다.

사례지 관찰 결과로 볼 때 옥동서원의 조망구성은 산(현수봉)-누(樓)-야(野)-내(川)-들판-청산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구조를 나타내며, 홍암서원은 서보천을 우측에 좌측 구서원에서 내려오는 개울을 끼는 이수(二水)와 노음산, 두리봉, 자산의 삼산(三山)이 합치되면서 초점적 집중경관을 나타낸다. 도남서원은 광활한 백사장과 낙동 강물이 전개되고 북에서 남서로 뻗은 비봉산 지류로 인해 skyline이 형성되면서 개방적 경관구조로 나타난다. 우산서원은 이 부근의 20절영을 예찬한 시구가 있을 만큼 경관의 구성 요소가 뛰어난 다변환경을 이룬 곳으로 주변 산이 위요되어 차폐적 구조유형인 봉쇄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서원은 학문을 강화하는 사학기관으로서 수학하는 자의 심성을 기르고 고뇌를 풀 수 있는 경관의 조성이 필요(정재훈: 96) 했던 것처럼 표 4와 같이 시계가 트인 수평·개방적 경관을 우선 하였고, 주향자의 연고지내 마을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곡선적이고, 위요 경관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망에 전개되는 지형적 지각 대상은 보는 경관으로 시각상 조형 의미를 갖고, 그 주변에 산재된 다양한 외부경관 요소들과 더불어 물리적 객체화를 이루면서 심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근경요소로는 들과 물이며, 조망을 강조시키는 경관인자는 멀리 떨어진 청산으로

표 4. 조망특성 및 경관요소

서원명	구분	조망특성			경관요소			
		좌향	구조유형	형태성*	시각성	조망대상	입지근경	주조망인자
도남서원	N→S				백사장·강·산(비봉산지류)	백사장	강	村·식물
육성서원	W→E	수평적구조		개방성	野·川·청산(간장산)	野	청산	村·식물
봉강서원	W→E				村·野·川·청산(곡시봉)	野	청산	村·식물
봉신서원	N→S	곡선적구조		유연성	池·산·野·청산(백화산)	봉산못	청산	村·식물
효곡서원	N→S				계류·村·野·청산	계류	청산	村·식물
우산서원	W→E	차폐적구조		봉쇄성	계류·川·野·산(천마산지류)	계류	산	村·식물사당
연악서원	S→N	초점적구조		집중성	계류·村·청산(천봉신)	계류	청산	村·서당·식물
홍암서원	W→E				川·野·村·청산(식산)	계류	村	村·식물·水石亭
옥동서원	W→E	연속적구조		변화성	野·川·野·청산	野	野	村·식물

* · : 대상지, ↑ : 조망성(시각방향), △산, -산의지류, ≡들, ≈내(川)

나타나고, 경작되는 들은 마을과 인접됨을 알 수 있는데, 주변에 계류, 강 등 물과의 연관성이 정자가 갖는 풍류 공간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원 주변에 옛 정취를 주었던 인자 변화물은 마을의 존재 여부와 식물이 우세 요소로 보인다. 이처럼 상주지방 서원은 자연 생태적 속성이 부여된 선경 경관을 이루는 곳이 많은데, 산과의 관련축, 마을과의 연관성, 경관요소의 다변성 등 자연과 공간적으로 연계된 무형적 경관과 인문환경을 담은 유형적 경관이 포함된 인상명리적(因象明理的) 묘합을 이룬 곳으로 접근해 보려 한 장소성이 나타나 있다.

3. 동선체계 및 공간특성

1) 동선체계

사례지 관찰 결과로 볼 때 옥동서원은 청월루→강당→사당공간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전이성을 보이고, 홍암서원은 외삼문→강당·부속건물→동·서재→사당으로 이어지는데, 외삼문은 중앙의 신도문과 유생문(우), 고자문(좌)으로 구분하여 중앙을 신도(神道)로 좌·우측의 문은 인도(人道)로 이용하고 있다. 도남서원은 마을을 지나는 전이성으로 인해 심리적 모호함과

인내의 심성을 체험케 하지만 곧 낙동강을 접하는 수경적 요소로 쾌적함과 호연지기를 느끼면서 서원에 다다른다. 우산서원은 우복종가와 대산루 사이 계류를 낀 곡로(曲路)를 두었고 외삼문은 강학공간과 단차를 이룬 낮은 누하 진입으로 중정공간을 강조시키고 있다. 그림 7과 같이 대상서원의 포치는 모두가 전학후묘로 전이체계는 동일하며, 여기에 강당중심형과 사당중심형식으로 다시 구분되나 동선의 유입 유출은 유사하다. 이것은 강당을 중심으로 축이 설정되고,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이고 수직을 이루기 때문인데, 이때 부속건물이나 지형 여건에 따라 축이 변형됨으로서 전이방식이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직선적 연속성이 부여된 같은 방식을 따른다. 즉 연속적 공간구성원리를 적용하는 수직적 전이의 선호형식은 향교공간이 갖는 특성과 마찬가지로 구릉지 입지성에 따른 종배열 체계와 배향을 우위에 둔 유가적 위계성이 배치형식에 접목되면서 여타 유형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외부공간을 이루고 있다. 진입방식은 옥동서원과 도남서원만 누각진입이고 나머지 서원은 외삼문을 이용하고 있다. 진입문의 의미로서 홍암서원은 신도문, 고자문, 유생문으로, 기타 서원은 입덕문, 영귀문, 회보문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삼문 진입을 상징하고 있는데, 외·내삼문에서 신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입출입되는 교호공간은 주거 등의 공간과 구

별되고 있다. 또한 사당중심의 전이는 전면부를 강조하는 단순함이 시각안정을 주는 대신 강당중심형은 '□'자로 나타나 강당의 시점 강조와 재실의 시각 양분화가 상호작용 되면서 공간의 동세 변화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동선체계는 주입구에서 강당공간까지 직선을 이루며, 좌·우측으로 강당건물을 돌아 후정, 또는 사당공간에 이르는데, 이런 일련의 형식으로 인한 상관적 체계성은 전학후묘 형식을 갖는 모든 서원에 적용되고 있고, 강당, 사당, 부속공간에 의해 연결, 폐합이 여타 유형의 전이성 보다 단순하고 용이한 연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2) 공간 특성

공간특성은 단위공간별 건물의 비례나 확보성이 건물이 갖는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례지 관찰 결과로 볼 때 옥동서원은 구릉지 입지의 3단 구성이며, 청월루의 지반이 강학공간보다 낮고 창문틀 현상의 밀폐감은 강당공간의 전체적 시각화를 이루지 못하나 누하진입과 계단에 의한 상승효과는 강당을 우세요소로 강조시키면서 심연성과 확장감, 신비감을 동시에 구현시키고 있다. 경내에 들면 은희당내 좌우 재실(방)이 있고, 북편 전사정을 거쳐 내삼문을 통과해 경덕사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폐쇄와 개방으로 연속되고, 건물의 분절과 분산이 단순하면서도 균정을 유지하고 있다. 흥암서원은 중정공간을 강조하는 진수당의 영역이 커 전

이로의 방향이 모호할 정도로 급격한 시각변화가 일어나고, 강당 뒤는 등·서재를 대칭으로 내삼문을 포함해 텅 빈 공간을 형성한 구조적 정연성과 질서는 안정감이 나타난다. 한편 남쪽으로 편각을 둔 부속건물과 사이를 띄운 어필각 그리고 수석정을 둔 공간 특징은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횡배열 구성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배치형태는 상주지방 서원으로는 유일하며, 옥외공간 질서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도남서원은 외삼문인 정허루의 누하 진입을 겪으면서 강당의 중정공간이 나타나고, 강당을 위시하여 좌우의 동서재는 병렬 대칭을 이루며, 3단 경사지에 위치한 중정공간은 사당과 외삼문과의 축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외삼문과 사당은 중축되게 배치시켰다. 내부의 넓은 부지 확보로 공간 확장감을 담장을 두어 축소하려 하였고, 주변의 낮은 지세와 구상 입지성은 경관감상이 우선됨을 볼 수 있다.

표 5, 6과 같이 부지의 확보성은 강학공간이 배향공간보다 높고, 조망과 관련된 공간 시계성도 배향공간이 낮다. 이처럼 강학공간은 동적기능을 주로 한데 비해, 배향공간은 재향의식 등 보다 엄숙한 공간을 위해 폐쇄성이 높은 정적기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건물 단위별 차이는 대상 서원 전반적 현상인데, 건물고에서 강당과 사당 다같이 비슷한 점이 제향공간의 위계 확보로 보이며, 단 차를 두는 지형에 사당공간의 고(高) 입지성은 조상공간이라는 우위성으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존현승덕이라는 서원의 존립성이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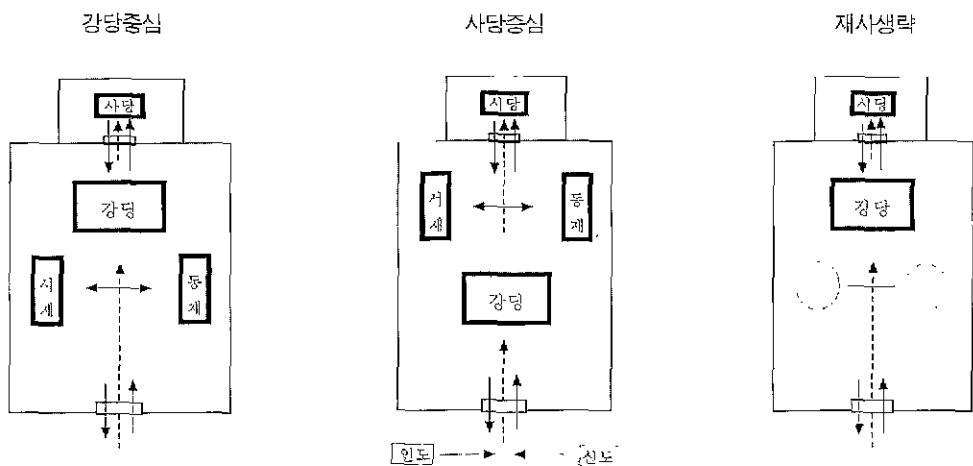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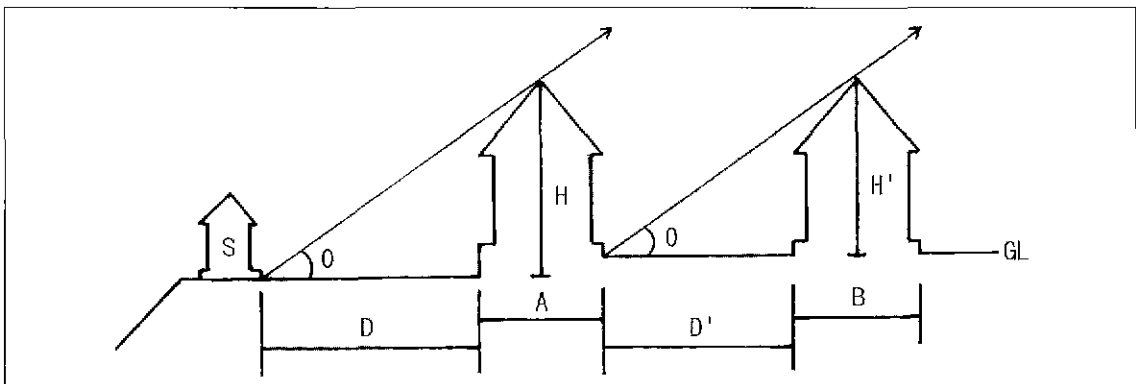
그림 7 배치 유형별 동선체계

된 향사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물과 마당부지 면적의 상호성은 강당과 사당의 비가 5.23 : 3.68로 1.42 : 1의 비율을 보여 강당 마당의 영역 확보뿐만 아니라 시각적 비례성이 고려된 기능적 가변성을 엿 보게 한다. 즉 강당과 사당의 건물 면적비는 71:39로 1.82:1이며, 마당 면적비는 381:150으로 2.54:1이다. 이와 같이 강학공간은 제향공간보다 행위

적 영역성을 강조한 면적확보와 제향공간은 강학공간보다 위계적인 측면에서 건물의 높이를 낮추지 않은 구성이 나타나 있다. 한편 건물간의 밀폐도(선단부에서 마당 종축거리변에 건물높이의 각도)는 강당이 26.71°, 사당이 43.00°로 사당이 강당보다 지극히 폐쇄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건물과의 인동간격은 인간적 척도(휴먼 스케일 최대거리 : 24m)를 넘지 않게 했다

표 5. 건물 높이와 마당 거리비 (단위 : m)

서원명	건물의 치마 높이(A) 건물의 높이(B)		마당의 거리		비율(%)		앙시각()° -B-	
	강당(H)	사당(H')	강당(D)	사당(D')	D/H	D' /H'	강당	사당
옥동서원	4.77	4.30	20.50	11.06	4.29	2.63	21.1	34.2
	7.87	7.45			2.60	1.48		
홍암서원	4.60	3.70	17.00	6.50	3.69	1.75	27.5	45.6
	8.85	6.55			1.92	0.99		
도남서원	4.24	4.24	20.26	8.73	4.77	2.05	21.4	42.5
	7.82	7.85			2.59	1.11		
우산서원	3.52	-	17.31	-	4.91	-	21.6	-
	6.72	-			2.57	-		
연악서원	3.72	3.79	14.50	4.77	3.89	1.25	22.0	51.4
	5.80	5.83			2.50	0.81		
봉강서원	3.60	4.73	7.60	11.25	2.11	2.37	39.1	33.0
	6.13	7.30			1.23	1.54		
봉산서원	3.13	4.71	14.46	6.25	4.61	1.32	20.4	45.5
	5.38	6.78			2.68	0.92		
옥성서원	3.05	3.27	7.50	4.23	2.45	1.29	35.3	52.4
	5.39	5.43			1.39	0.77		
효곡서원	4.25	3.40	11.40	6.70	2.68	1.90	32.0	39.4
	7.12	5.40			1.60	1.21		
평균	3.88	4.00	14.50	7.44	3.71	1.82	26.71	43.00
	6.79	6.57			2.12	1.11		



주) A. 강당. B. 사당. D: 마당 종축거리, H: 건물높이, O: 앙시각, S: 대문 및 선단부

그림 8 건물과 마당의 공간도

표 6. 건물과 마당 면적비 (단위 · m)

구분 서원명	건물의 면적				마당의 면적				비율(%)	
	강당(D1)	계	사당(D2)	계	강당(D3)	계	사당(D4)	계	D3/1	D4/2
옥봉서원	6.4×15.3	97	6.7×9.4	62	13.6×22.3	303	11.0×20.6	226	3.12	3.60
홍암서원	8.1×16.0	129	5.0×7.4	37	17.0×29.2	496	5.4×16.8	90	3.84	2.43
도남서원	7.5×12.5	93	5.7×8.9	50	20.2×51.0	1030	8.7×31.5	274	11.07	5.48
우산서원	5.3×14.4	76	-	-	18.3×27.2	497	-	-	6.53	-
연악서원	4.3×11.1	47	4.0×8.7	34	14.4×23.2	334	4.7×17.9	84	7.10	2.47
봉강서원	4.5×9.7	43	4.6×7.7	35	7.6×21.7	164	11.2×22.4	250	3.81	7.14
봉산서원	5.3×9.7	51	4.4×8.2	36	14.4×12.2	175	6.2×22.0	136	3.43	3.77
옥성서원	4.2×10.1	42	4.0×7.7	30	7.5×15.7	117	4.2×15.6	65	2.78	2.16
효곡서원	5.4×10.8	58	4.2×7.4	31	11.4×27.4	312	6.7×11.2	75	5.37	2.41
평균		71		39		381		150	5.23	3.68

(그림 8). 그러므로 시각적인 비례, 조화적인 측면, 그리고 대비를 이루는 공간적 위상은 건물 구성에서 구분하고 있으며, 건물의 인동간격, 횡·종축 변의 길이 등은 조망과 전이에 영향을 미치고, 공간미를 나타내면서 서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별되는 공간감이 나타난다. 따라서 서원은 유교사상에 의한 의도적인 공간구성으로 건물의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중정공간은 수직적 상향성이 나타나며, 사회적공간임을 강조시키고, 정신적 기조가 강조된 재향공간은 신계(神界)와의 연속성과 엄숙성은 밀폐감으로 나타나 소 영역을 형성시켰고, 계단식 구배의 주중관계는 승화 의미와 위계성으로 유가성(儒家性)이 반영된 체험적이고, 인식적 외부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4. 정원특성

정원의 구성요소로서 수목, 구조물, 景의 공간이 외부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사례지 관찰 결과로 볼 때 옥동서원의 경우 문루에서 경내 진입시 자연석 계단(W: 1.0m, L: 0.9m)을 두어 단순하면서도 실용성을 갖고, 樓에 오르는 좌측 디딤돌은 자연석 방사타로 공간 확보감을 주어 마당의 운치를 내고 있다. 경내는 산수유(30-40년), 은행나무(고사: 200년), 회양목(고사), 배롱나무를 식재 하였다. 홍암서원은 마당의 미화처리는 미비하나 유실수를 주로 한 식재성이 특이하고, 어필각 앞에는 수 그루의 삼수리나무, 배경목의 소나무가

있어 선경공간 강조와 경내·외의 조용하고, 소박한 공간미를 주고 있다. 도남서원의 정원 구성 요소 중 계단식 좌·우측 담장을 구릉에 따라 조성시켜 일련의 연속적 선형미를 주고, 단을 형성시킨 공간분할은 점층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주변산과 낙동강의 수경적 요소 등 주변 환경요소는 인공과 자연의 합일체를 형성시키는 가교 역할과 특히 담장은 형성되어 있으나 高 입지성으로 차폐나 위요 의미 보다 전방경관의 차경의도가 돋보인다. 우산서원 또한 주변 경관을 이용 하고자 의삼문의 높이를 낮추었고, 담장 높이(내: 1.50m, 외: 2.16m) 또한 지반 고저를 이용해 밖에서는 서원의 보호와 방어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내부에서는 중정공간의 부지를 높여 담의 높이가 사람의 평균 키(1.61m) 보다 낮아 조망권이 확보된 구조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영은 경관감상으로 인해 느끼는 심성의 중요성과 고뇌의 해소 의미로 보인다. 복원 추정으로 볼 때 강당공간의 우측편으로 큰 반석을 두었으며, 좌측으로 직경 3~4m의 소규모 연못과 수양버들을 심어 수경화 하였다.

표 7·8과 같이 정원식물은 낙엽수>유실수>상록수>기타 순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비율(9개 서원에 대한 비)에서 낙엽활엽교목은 배롱나무, 상록침엽교목은 소나무, 낙엽활엽교목 중 유실수는 감나무가 식재율이 높고, 배경목은 졸참,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서원을 지네비보 요소로 적용시키고 또 상극되는 밤숲을 도입한 홍암서원도 있었다. 상징·실용 점경물에 있어서

표 7 정원소재(식물)

성상	구분	수종	대상서원									비율 (%)	정대	정의	배경목
			A	B	C	D	E	F	G	H	I				
낙엽수	낙엽활엽교목	배롱나무	*+		+			+	+			44	ACF	G	ABG
		굴참나무	+	*+	+				+		44				
		옻나무	+	*+							22	A·B			
		느릅나무								*+		11			H
		오동나무									+	11		I	
		패죽나무			+							11			B
		느티나무					+					11		D	
		두릅나무							+			11	F		
		수양비들					*+					11	D		
	단풍나무							+			11	F			
	낙엽활엽관목	바테기나무	+									11	A		
		철쭉								+		11	F		
		무궁화								+		11	F		
		계(13)	4	3	2	2	0	5	2	1	1		8	4	3
상록수	상록침엽교목	소나무		*+	+			+				33	BF	C	BF
		젧나무	*+							+		22	AH		
		잣나무	+						+			22	F		A
		리기대다소나무				+						11		C	
	주목								+		11				
		계(5)	2	1	2	0	0	3	0	1	0		3	2	2
유실수	낙엽활엽교목	감나무	+	+	+		+		+		55	BCEG	A		
	낙엽침엽교목	은행나무	+			+			+	+	44	GD	AID		
	낙엽활엽교목	산수유	*+			+						22	AD		B
		호도나무				+	+					22	E	D	
		밤나무	+	*+								22		A	
		살구나무		*+								11	B		
		배나무		*+								11	B		
		복사나무						+				11	F		
		석류나무						+				11	F		
	자두나무					+					11	E			
	계(10)	4	4	1	3	3	2	2	0	1		9	4	1	
기타	낙엽만경목	담쟁이덩굴	+			+						22	AD		
		계(1)	1	0	0	1	0	0	0	0	0		1	0	0
	상록활엽교목	대나무								*+		11			H
계(1)		0	0	0	0	0	0	0	1	0		0	0	I	
	합계(30)	11	8	5	5	3	10	4	3	2		21	10	7	

참고 : A,옥동서원 B,홍암서원 C,도남서원 D,우산서원 E,연악서원 F,봉강서원 G,봉산서원 H,옥성서원 I,호곡서원.
 (*+1표시는 古木 및 枯死木)

는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없어 보였다. 한편 서원과 관련이 있는 풍류공간 중 옥동서원은 북쪽 산봉위에 영풍송월(詠風誦月) 했던 백옥정이 근거리에 위치하는데, 그 아래 증보천이 흘러 절경을 이루고, 서쪽 300m 지점에 세심석(둘레 20m, 높이 5m)이 있어 서원과 관련된 공간 활용 장소로 보인다. 이처럼 옥동서원이 있

는 백화산 주변은 세심석, 사담, 명경대, 병풍바위, 저승폭포, 진투강변, 난가벽, 부처굴의 八景이 있는 곳으로 석산 이만부(1664-1732, 조선후기 처사)의 구수천팔탄(景)에 소개(노천가, 1992:12-16)되어 있다. 홍암서원은 남쪽 근거리에 수석정이 암반 위에 있었고 그 아래 서보천이 흘러 묘화와 풍류공간을 연계시켰고, 우

표 8 정원소재(식물 및 구조물)

구분 성상	구조물	대칭서원									비율 (%)	강학 공간	배향 공간	정의
		A	B	C	D	E	F	G	H	I				
상 징 물	비 석	+	+				+	+			44			ABFG
	하 마 비	+	+					+		33			ABG	
	계(2)	2	2				1	2				0	0	2
실 용 물	담 정	+	+	+	+	+	+	+	+	+	100			ABCDEFGHI
	자연석계단	+	+	+	+						44	ACD	BC	
	축 대	+	+	+							33	C	B	
	연 못				+						11	D		
	회 오								+		11	H		
계(5)	3	3	3	3	1	1	1	2	1		4	2	2	
합계(7)	5	5	3	3	1	2	3	2	1		4	2	4	

범례 : A.옥동서원 B.홍암서원 C.도남서원 D.우산서원 E.연악서원 F.봉강서원 G.봉산서원 H.옥성서원 I.효곡서원.

산서원은 그 주변이 대곡잡영이십절(臺谷雜永二十絶)의 대산루, 계정, 회원대, 오봉당, 오노대, 상봉대, 오주석, 우화암, 어풍대, 수륜석, 우암, 화숙, 운금석, 쌍벽담, 산영담, 청산춘, 공선봉, 수회동, 화도암, 만송주 등으로 이 부근의 20절영을 나타내는 곳이며, 서원과 연계된 대산루와 계정 앞으로 우산천이 흘러 풍류적 장소성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상주지방 서원은 유생들의 수행처 뿐만 아니라 향사 기능으로 유가적인 규범이나 절제성이 나타나고, 차경 수법을 활용해 자연, 인문공간과의 경계를 희석시키고 있다. 또한 서원의 공지활용 면에서 체원이나 약초원을 둔 사례는 없었으며, 조경화 시키고자 한 의도는 상주지방내 분포하고 있는 중·상류주거나 사찰 등의 공간보다 적은 것으로, 이것은 간절성과 명료함 그리고 주변경관의 수려함에서 빚어낸 선경 공간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조선시대 묘학공간인 상주지방 서원의 외부공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상적 측면과 문헌분석 등으로 역사와 조영성, 입지 및 경관구조, 전이성, 공간미, 정원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상주지방 서원은 주로 서원의 발전기로 보는 17C 중-18C초에 건립되어졌고, 건립의 주요 사상은 삼신, 풍수(수목·지명비보), 은둔, 노장, 유교사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공간형식은 대부분 영남지방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전학후묘형 강당중심의 종배열 체계이나

기호지방에 영향을 받은 사당중심형도 1개소 출현되면서 부속건물을 수평으로 두는 횡배열 구성체계를 보인다.

2. 입지선정 배경과 요인 중 한국서원의 입지적 특성을 밝힌 이상윤의 연구에서 주향자의 연고지, 자연환경요소가 관련된 것과 같이 상주지방의 서원도 자연지세를 활용하면서도 주 축을 이루는 지리체계가 반영되어 향교와 같은 문묘의 남향 배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방위성이 깨져되어 있었다. 또한 연고지를 주로 한 구릉형이며, 마을뒤나 측면에 위치하면서 자연환경요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읍성을 중심으로 환상형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선호되는 조망경관은 개방과 유연성이 있는 수평과 곡선적 구조이고 근경 조망권의 우세경관 단위 요소는 물이었으며, 특장산이 주 조망 인자였다.

3. 전이성은 전학후묘형식을 따르는 영남지방의 동선과 유사하며 수직·곡선 등 연결이 단순한 연속성 부여와, 단위공간별 적정 간격으로 인간적 친밀공간을 나타내는 안정성 확보 그리고 고묘저학(高廟低學)의 단차를 두는 위계성으로 인식적 외부공간을 이루고 있었다. 공간에서는 강학공간은 동적개방성이 있고 제향공간은 정적 폐쇄기능을 갖는데, 공간의 폐쇄도에서 상주지방의 유형별 단위공간적 D/H비는 전면부의 경우 D/H=1<향교<상류주택<사찰<서원의 순이며, 후면부는 D/H=1<서원<상류주택<향교의 순이었다.

4. 정원특징은 유가성이 반영된 내적 조경화 보다 자연동화와 외적 자연경관우세로 借景手法를 활용하고

있었다. 정원 소재로 점경물의 이용은 낮고, 정내(庭內)는 배롱나무를 주로 한 낙엽활엽수 비율이 높았으며, 배경의 주 목(木)은 소나무와 졸참나무로 선경공간이 강조되면서 단순하고 소박한 특징이 나타나 있었다.

- 주1. 대상지의 영역 주를 범위는 동측 46km, Y축 3.7km에 전 방좌향에서 45°·90° 투영시킨 결과로 Digital Terrain Elevation Data(1 25,000)를 이용한 GIS TIN의 contour image는 수치표고모형인 surface view로 세부경관 적시는 어려우나 외부경관을 이루는 中·遠景의 지형적 특성을 가시적 입면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입지삼권검과 조망 시계상 지형적景觀구조 파악에 유리함을 볼 수 있었다
- 주2. 지내형상을 한 노을산(728m)의 한 지맥(위치, 홍암서원 뒷산)이 동남쪽인 시대로 진입해 들어오는 형국이라 풍수비보 측면에서 홍암서원을 두어 그 기(氣)를 막고자 했다
- 주3. 밤숲은 서보교와 홍암서원 주변에 의도적으로 조성되어졌으며, 그 증거로 고사목 등치와 현존식생이 발견된다. 또한 상주시 북룡동에 1873년(고종 10) 목사 조병노가 수방(水防)을 위해 조공제(趙公堤)로 조성되었던 특을지리설에 일각한 지세적인 영향으로 고을에 소년 죽음이 많아 마주보는 냇의 동쪽에 지내 상극 요소인 밤나무를 심어 그 기운을 차단코자 했다. 이러한 오희(蟬蟻)의 영향을 받아 식재된 밤숲(면적, 2,033㎡, 남북 길이: 250m, 높이 6m, 폭 5m)은 현재 독 위로 열석되어 있고, 그 당시 조성목으로서 수목비보와 생태학적 입지성을 나타낸 조경적 가치로 판단된다

인용문헌

1. 권태을(1995) 가정별, 가정별 교지편집곡: 188.
2. (1991) 경북마을지, 경북항토사연구학회화 53, 73, 949
3. 김종현(1998) 개인교신(도남서원 문중).
4. 김봉열(1988) 한국의 건축-전통건축편-, 공간사 179.
5. 김은중(1996) 한국의 서원건축. 문운당 7, 26, 229.
6. 김은중, 주남철(1991) 서원건축의 배치 유형 및 변천 추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6) 123-129.
7. 김자상(역)(1984) 상산지, 대남인쇄소 39
8. 김지민(1991) 전남지방의 서원·사우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2), 183
9. 노친가(1992) 상주, 상주연구회: 12-16.
10. 박시익(1987)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건축에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5.
11. 박두필(1987) 상주(3), 상주문화원·상주지발전회: 298-299.
12. 성보환(1998) 개인교신(홍암서원 유림 회장).
13. 상주문화원(1997), 상주문화유적, 제일인쇄사 109, 317
14. 상주시군(1989), 상주지, 상주시문화공보실 843, 844, 847, 849, 1402-1404.
15. 상주군(1985), 상주의 딸, 상주군 문화공보실 177
16. 윤장섭, 강영환, 김대익(1987) 경기도 향교, 서원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7.
17. 이현택, 이 정(1994) 서원 중정공간의 체계성, 한국조경학회지, 21(4): 102
18. 이상윤(1993)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6.
19. 정재훈, 조선조 서원 조경의 고찰-도산서원-, 문화재관리국 96
20. 정춘록(1998) 개인교신(우암서원 종손)
21. 최상철(1976) 이조서원 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100.